

지역 매 아 리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유진섭)은 최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과 장학재단 임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 50명 각 50만원, 전문대 16명 각 150만원, 4년제 88명 각 180만원씩 모두 154명에게 총 2억 74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시민장학재단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간 총 1,957명의 학생에게 22억 9,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유진섭 이사장은 "배움의 시기에 창의성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배우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미래인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장학금은 정읍 시민, 그리고 타지에 계시는 정읍 향우 회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사랑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식과 관련,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 간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총 58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심의를 갖고 15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경쟁률은 3.8:1로 지난해에 비해 보다 높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BMW 차량 안전점검 독려

고창군이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리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긴급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점검을 적극 독려했다.

고창 관내 BMW리콜대상 차량은 53대이며, 20일 현재 51대가 점검을 완료했고 나머지 2대도 점검 예정에 있다.

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 받은 BMW운행정지 대상 차량에 대해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차주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안전점검을 적극 독려했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BMW차량은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가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청사의 부안 유치를 촉구하려는 범 군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안 군민의 염원을 담아

부안군의회,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청사 유치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새만금 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청사의 부안 유치를 촉구하려는 범 군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20일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을 비롯한 한 전 의원들이 부안 농협 일원에서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청사 부안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서명 부스를 운영, 부안 유치 달성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부안 군의회는 서명 부스에 게시한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의 군산 유치 결정은 새만금사업 시행 이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내측

수질오염 및 어민 피해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됐던 부안군민들에게 또 한번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부안군 의회 의원들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부안군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 홍보관 등 관련시설 인프라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의 청사는 반드시 부안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청사 부안 유치 촉구 범 군민 서명은 이날 말까지

부안군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 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서명운동에서 접수된 군민 서명과 함께 취합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 군의회는 앞서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설치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해 부안 유치를 적극 건의했고 집행부, 사회단체와 함께 각종 회의를 통해 새만금 관련 기관의 부안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보건소,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은 내장산단풍생태공원과 성황산 등산로 등 모두 6개소이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는 손잡이를 잡고 누르면 기피제가 분사되는 방식이다. 얼굴을 제외한 옷이나 신발 등에 2~3회 정도 분사하면 되는데, 해충

접근 차단 효과는 약 4시간 지속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과 쯤쯤기무시증, 일본뇌염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피제는 완벽한

예방책이 아니므로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고, 특히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북도 재난안전기금을 지원 받아 기피제 1만 여 개를 구입, 시민에게 배부하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췌,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 합동 점검

부안경찰서(서장 임성재) 여성청소년계(여청계장 김세화)는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난 17일 학교전담경찰관, 부안 교육지원청,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여 명이 부안을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 점검은 여름방학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 예방하고자, 부안을 노래방·PC방·편의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령기준인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및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 행위, 신분증 확인 의무 등을 안내하

였다. 한편 부안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오후 26일까지 40일간 하계 방학 기간 학교교폭력 및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피서지 아웃리치,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공원·PC방·학원가)순찰·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별나라여행축제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별나라여행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전국 유일 천문축제 로서의 위상 다져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정읍천문연구회(회장 임청규)가 마련한 제18회 별나라여행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축제는 최근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한국우주환경연구소 장 이태형 박사가 제2의 지구 화성·화성의 과거와 미래란 주제로 특강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또 전북기상과학관이 주최하는 천체투영실 체험과 성도 만들기, 월면스케치, 기상 캐스터 체험 등 기상과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천체 촬영대회가 열려 초·중·고 학생들의 천문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

였다. 대회에서는 우주누리상 심현서(전주 새연초3), 햇빛누리상 백재훈(정읍 남초5), 달빛누리상 이혜립(정주교2), 별빛누리상 김태연(광주 마재초4)의 6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천문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천문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함은 물론 우주를 향한 도전 정신을 함양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읍천문연구회는 "정읍, 나아가 우리나라의 천문과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천문학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태풍 '솔릭' 상륙 대비 철저히

재해위험지역 현장 점검 총력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과 가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 소식에 따라 고창군이 인적, 물적 피해 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일본 남부 해상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22일 제주도를 거쳐 23일, 24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창천 등 주요관측소에 수위관측소시설 2개소 하천감시 CCTV 1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7개소, 우량관측시설 1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7개소를 갖추고 태풍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폭우나 강풍, 풍랑에 따른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현장 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풍대비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및 수산시설물 대피와 결박 고정 등 태풍주의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20일 현안회의에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 태풍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은 물론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lik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